

2006. 11. .

# 其他案件審查報告書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동의(안)

産業建設委員會

# 기타안전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안 건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2020년 충주 도시 기본계획안	2006. 10. 10	2006. 10. 18	2006. 10. 20	2006 11. 8	지역개발 과 장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의무 부담동의(안)	2006 11. 3	2006. 11. 6	2006. 11. 20	2006. 11.20	하수시설 과 장

## 2. 제안설명요지

### 가.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함

### 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충주시 관내 하수처리구역내 기 매설된 하수관거가 노후·불량으로 누수와 지하수 오염원인이 되고, 집중호우시에는 통수능력 부족으로 저지대의 침수요인이 되는 등 하수관거의 정비가 시급하나 재정형편으로 근본적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여

-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 관리를 동시에 책임을 지게되는 BTL사업으로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 계획대상 : 충주시 전구역 (983.984km<sup>2</sup>)
- 목표연도 : 2020년
- 계획인구 : 400,000명
- 계획내용 : 도시의 특성, 생활권, 교통 등 충주시를 개발하고 관리를 하기위한 지침과 지표를 설정

#### 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사업비 (사업자의무부담액) : 991 억원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
- 채 무 자 : 충주시
- 사 업 량 : 72km
- 상 환 방 법 :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선시행 완공후 익년부터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로 20년간 원리금 상환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20년단위의 장기종합계획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정책계획으  
로 직접적인 행위규제를 하는 계획은 아니며  
하위의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상위의 계획

#### ○ 최근에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충주시와 중 원군이 통합한 후인 1997년 4월에 입안을 하여 1998년에 건설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음

이 당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16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고 목표  
인구를 35만명으로 설정한 계획이었지만

이 당시의 계획은 도시지역을 다루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  
역을 다루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었으나

양 법이 폐지되고 2002. 2. 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라  
202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

#### ○ 본 계획이 내년 초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내년 하 반기 이후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개발 및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 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이 때에 용도지역·지구·시설 등이 결정됨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제사항은 그 때에 다루면 되겠음

○ 본 계획을 보면

2020년의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를 40만명으로 책정하고 있고

기본구상으로는 충주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연계하는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중원문화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중원 역사·문화도시」, 「국제적 관광 휴양도시」, 「생태환  
경도시」를 충주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부내륙선 철도,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이 반영된 공간구조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  
음

○ 생활권별 개발방향은 충주시 전체를 3개의 생활권으로 대별하여  
시내동지역, 동량, 산척, 엄정, 소태면을 포함하는 동북부생활권  
이류, 주덕, 신니, 가금, 금가, 노은, 양성면을 포함하는 서부생활권,  
살미와 수안보면의 남부생활권역으로 나누고 있고

다핵구조 기능을 설정하여 시가지의 도심기능,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의 부도심기능,

주덕, 수안보, 양성, 신니, 엄정·산척 2개면을 묶어 5개지역으로  
기능을 정하고 있음

○ 사업의 전략으로 20대 구상사업과 10대 전략사업을 정하였는데 나름대로 지역을 전체적으로 안배하고 특화하여 추진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기본계획 중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목표인구로 설정하고 있는 40만명에 대한 근거가 모호함

최근 충주시는 8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은 20만이 위협받고 있음

최근 모 일간신문에서도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서 52만의 천안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수로 95만명을 설정하였으나 건교부에서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던바

천안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

막연하게 숫자를 부풀리기 보다는 적절한 목표인구를 잡고 구체적인 인구유입전략을 통해서 목표인구수를 달성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함

○ 두 번째는 생활권을 구분하면서 지역특성이 더 고려 되어야 하겠다는 것임  
어느 도심이나 마찬가지로 현상이지만 우리시에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공동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심에 대한 계획도 배려가 되어야 함

따라서 「동북부생활권」은 「도심생활권」과 「동북부생활권」으로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고

「서부생활권」도 역사·문화·관광·휴양을 중심으로하는 양성, 금강, 금강의 「서북부생활권」과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등과 연계한 이류, 주덕노선을 부도심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서남부생활권」으로 분류하여

①도심생활권 ②동북부생활권 ③서북부생활권 ④서남부생활권 ⑤남부생활권과 같이 5개의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함

- 세 번째는 충주가 남한강, 달천강, 충주댐 등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반의 도시이지만 춘천만큼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강과 호수를 끼고 주거형태를 발전시켜 관광상품화하였듯이 충주댐 상하류 양안에 절제된 형태의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물의 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화된 이미지를 전략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문제 등이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향후 2020년 충주는 관광·휴양·문화·산업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 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66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가 평균 8.6m마다 1곳이 부실하여 하수관내 유량의 약 30%가 외부 침입수로 추정 유입수질이 50%미만인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장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
- 참고로 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수의 농도가 설계된 수질의 70%정도를 유지하여야 목표하는 하수처리결과를 얻을수 있지만 50%미만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게 됨
-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부실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신규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3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단기간에 부실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BTL 사업을 선택하게 됨
- 본 BTL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5조 6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인 2005년에는 17개 시군이 1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부분 협약 체결이나 협약을 완료하여 착공을 하였고  
올 2006년도에는 2조 3천억원의 예산으로 3개 광역시와 26



개의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내년 2007년도에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15개의 시·군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
- 금번의 BTL 사업은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을 하면서 나머지 시공분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착공초기에 공정율을 높여 하수관거 정비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공사준공 이후 20년간 하수관거 관리운영의 책임을 주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행될 전망이다
-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의거 향후 기존 하수관거시설비의 국비지원을 줄여나갈 방침이고 우리시에서도 매년 자체 하수시설비로 16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 86억에 대한 원리금 소요금액 5억원 정도를 감하고도 1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됨

## 5. 질의답변 요지

### 가.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 ▶ 질의 : 도시계획에서 집행이 안된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 있는 것인지?
- 답변 : 해제를 법적으로 검토 하겠음

### 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 질의 : 없음

## 6. 심사결과

가.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 의견서채택

나.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 가결

붙임 :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서 1부

# 의 건 서

□ 의 안 명 :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 □ 심사경과

- 의안번호 : 제731호
- 상정일자 : 2006. 10. 20
- 의결일자 : 2006. 11. 8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 □ 의 건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도로)에 대한 해제조치 강구
- 도시기본구상 중 지역별 구상에 노은면 지역은 실버타운, 신니면지역은 국제 청소년 학습·레저랜드 반영
-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
- 주덕읍 신중리와 삼청리인근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전략·구상사업에 교육인프라 구축과, 의료사업 구상을 반영
- 2020년 목표인구 40만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 반영
-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구상사업 반영

2006. 11. 8

산업건설위원장